

■ 맵소사! 또 다른 카스트로가 쿠바의 권력을 잡았구나

로저 F. 노리에가

피델 카스트로는 스스로 악마의 자리에서 한걸음 물러나, 혁명 동반자이자 친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baton을 넘기겠다고 나섰다. 대담한 성격의 이 늙은 독재자는 만만한 국제사회를 현혹하여 어떻게든 권력승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물론, 전 세계가 쿠바인들의 복지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런 승계체제가 피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피델의 쇠락으로 쿠바 역사상 절호의 희망적인 시기가 도래했다. 쿠바의 양심세력은 이 노쇠하고 신용불량인 정권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려고 할 것인데, 외부인의 역할이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한다면, 특히 미국이 실수를 한다면, ‘새로 등장한’ 쿠바의 독재자를 정당화하고, 천백만 쿠바인들의 절망감을 지속되리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카스트로 정권이 주먹을 바꾼 것은 -보나마나 똑같이 철권을 휘두르겠지만- 쿠바 내부에서 진행되는 진짜 드라마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다. 신화적 혁명가 카스트로가 뒷전으로 사라지자,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국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다. 쿠바의 새 지도자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억누르지 못한다면, 급격하게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카스트로 정권 특유의 무자비한 강경조치를 취한다면 쿠바 국민과 이를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이 정권을 전복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2008년 2월 24일 피델 카스트로가 사임한 국가평의회 의장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세계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열망을 짓밟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우선, 이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후일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최근 몇 주 동안 쿠바에 관해 한가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 중에는 쿠바인들이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런 견해는 좋게 해석하면, ‘평화적인’ —신중한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잘못된 용어— 변화가 이루어져야 다칠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 파산한 스탈린식 체제 아래서 신음하는 천백만 쿠바인은, 라울에 대한 불평이나 자식들의 장래 걱정을 이웃이 엿듣고 신고라도 한다면 하찮은 직장이나 쥐꼬리만한 식량배급이나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평화적인가? 쿠바인

들은 경찰국가의 ‘안정’ 속에서 음썩달썩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쿠바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대규모 쿠바 난민사태를 우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점진적’(go slow) 방식을 지지하는 정책입안자들의 통상적인 주장을 재고해야 할 때다. 피델 이후, 쿠바인들이 대규모로 미국 해안에 몰려드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쿠바인들이 쿠바에서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울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쿠바인들의 꿈을 꺾어버리도록 우리가 방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적인 쿠바인들의 대량난민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권력승계라는 술수는, 피델 스스로가 단순한 ‘폭도’(hood)가 아니라 ‘로빈 후드’로 치장할 날만 고대하던 체제사상가들에게 마지막 호재이다. 그러나 한때 CIA에서 최고의 라틴아메리카 분석가로 명성을 떨치던 브라이언 라텔(Brian Latell)이 2005년에 출판한 책 『피델 이후』를 보면, 피델은 미국에 대한 집요한 증오 때문에 자아도취적 프로젝트를 기획한 썩어빠진 불량배이다.¹⁾ 피델은 누차에 걸쳐, 피델 독재 반대라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끈덕지게 요구했다.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카스트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피델의 동생이자 핵심 공모자이며 피델이 지명한 라울에게 인내심을 갖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라고 권유한다.

한마디로, 통상적인 사고는 쿠바에 대해 별 효력이 없었으며, 지금은 예전보다 더욱 쓸모가 없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라울의 권력승계를 지렛대삼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1) Brian Latell, *After Fidel: Raul Castro and the Future of Cuba's Revolu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고집불통의 쿠바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쿠바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던 간에 이런 정책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리처드 닉슨의 외교정책팀은 아바나—최고조에 달한 냉전 상태—와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했다. 20년 후, 동일한 정책추진자들 중 일부는 냉전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대 쿠바 제재조치를 완화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쿠바인들에게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냉전은, 쿠바에서 교체 투수와 연장전을 치루고 있다.

라울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라울에 대해 유일하게 상세정보를 제공한 라텔은 앞서 언급한 탁월한 성격 연구서에서 카스트로 형제의 인간적 면모를 약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라텔은 카스트로 형제를 깡패로 묘사하고 있다. 피델은 기회주의 파시스트이며, 라울은 헌신적 공산주의자라는 것이다. 라텔이 묘사하는 라울은 순박한 소도시에서 성장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가정적인 남자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라텔은 잔인하고 용의주도한 라울이 어떻게 피델의 폭력적인 투쟁과 본인의 공산주의 원칙에 봉사했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라울의 조직 능력은 반대파를 공포에 떨게 하고 50년간 권력을 유지하도록 한 스탈린식 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라울이라는 사람이, 12년 전 국제영공에서 두 대의 미국 구조 비행기에 탑승한 무고한 시민 네 명의 살해공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²⁾ 그 사건 전에는 쿠바 영토를 통해 미국으

2) 쿠바의 군용기가 1996년 2월 24일 쿠바의 북쪽 공해상 위를 날던 구조항공기를



2007년 당 행사에 참석한 쿠바공산당 원로들

로 마약 밀반입을 교사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때 라울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신에게 마약달러가 든 가방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한 동지들을 심판하는 쇼 같은 재판과 처형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했다.³⁾

이미 수십 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스트로 혁명이 명예 회복할 날만을 고대하는, 학계와 여타 분야의 인사들이 있다. 이 정권이 남긴 것은 분노더미뿐인데도, 조랑말을 찾

공격했을 때, 세 명의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살해당했다.

3) Andres Oppenheimer, *Castro's Final Hour: An Eyewitness Account of the Disintegration of Castro's Cuba*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참조: Brian Ross and Vic Walter, "Raul Castro: Cocaine Connection?" *ABC News*, April 14, 2006. (<http://blogs.abcnews.com/theblotter/2006/08/>) 로스와 월터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 검사는 1993년 주요 마약 밀반입 음모의 수괴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할 준비가 돼있었다."

으려고 여전히 뒤적거리는 것이다. 라울 체제가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라울이 기대에 부응하여 쿠바혁명의 ‘꼴통’ 사상가이자 경제 맴장이인 카를로스 라헤(Carlos Lage)를 제1부의장으로 임명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76세의 라울은, 전력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군부 강경파를 부의장에 앉혔다. 평균 나이 70세를 넘긴 이들은 잔혹하고 교조적인 쿠바 정권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교조적인 사상가 그룹에 속한다.⁴⁾ 라울은 정치적 수사에서조차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다. 평의회 의장 수락 연설에서 라울은 의장 임명을 “역사적 순간에 혁명을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했고, “피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며, 국민들은 피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⁵⁾

라텔은 최근, 라울의 승계는 병상의 피델을 밀어낸 것으로, 실제로는 쿠데타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라텔은 라울이 국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를 개방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는 의심스러운 가정이다. 그러나 라텔 역시, 라울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울이 강경파 노장간부를 진급시키고, 국가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척 위장하는데, 이는 결국 중견관리와 장교를 소외시키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이다.⁶⁾

4) 2008년 2월 24일,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날, 세 명의 군성들 —호세 라몬 마차도 벤투라(José Ramón Machado Ventura) 장군, 훌리오 카사스 레게이로(Julio Casas Ragueiro) 장군, 레오폴도 신트라 프리아스(Leopoldo Cintra Frías) 장군— 또한 부의장에 선출됐다. 경제정책입안자이자 부의장인 카를로스 라헤는 유임되었다.

5) “Excerpts: Raúl Castro’s Speech,” *Miami Herald*, February 25, 2008.

6) Brian Latell, “Cuba’s Generation Gap,” *Wall Street Journal*, March 1, 2008.

그간 공산주의 이념을 위한 맹목적인 활동으로 미루어보건대, 라울이 피델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좌절한 개혁자라는 세간의 가정은 설득력이 없다. 라울이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 모델’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10년 전, 라울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쇠락한 쿠바 경제를 위해 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한 학자들을 박해했다. 1990년대 후반, 라울의 역할은 임시방편의 개혁조치(불안정한 자영업 육성 프로그램 등)를 제한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관망하는 것뿐이었다. 라울은 안보기구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군 고위간부들이 초창기 관광사업의 40퍼센트를 퍼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라텔에 따르면, 실제로 라울은 1990년에 군부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피델과 맞섰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라울은 관광분야를 개방했지만 그 과실을 국민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난 세월 라울이 보여준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암시하는 바는, 라울이 ‘중국 모델’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한 것은 계획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벽한 통제의 유지라는 사실이다.

라울이 쿠바를 책임진 지도 9개월이 지났으나 경제나 정치 부문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변화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라울은 과거의 질서를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기다려봐.” 통상적인 사고는 이렇게 이른다. “피델이 죽으면, 라울은 개혁의 날개를 펼 거야.” 어쨌거나 피델이 죽으면 쿠바 국민의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 요구는 쿠바 국민의 자원, 창조성, 정신을 해방할 때만이 충족될 것이다. 이러한 힘을 풀어놓으면, 카스트로 체제의 유산은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라울은 소비에트 이론가들이나 장군들과 평생의 파트너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결코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아니

다. 라울의 가슴에 인간적인 본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지난 50년간 피델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울이 접촉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시장(market)의 힘을 이해하고 또 국내외에서 쿠바의 경제적 자산을 관리하는 명민한 사람들이 틀림없다. 그러나 경찰국가 유지에 필요한 자본 창출을 위해 시장조절법을 배우는 것이, 쿠바의 모든 사람과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라울이 폐쇄적인 개혁가라는 증거는 없다. 이 교활하고 잔혹한 인물이 명칭하거나 자멸하리라는 증거는 더구나 없다. 정당성도 없고 또 실패한 정권으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허용할 때 닥쳐올 사회불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라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쿠바인들을 위해 라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간에, 라울이나 측근이 노쇠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승계자를 지명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고, 따라서 운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응: 도와주거나, 적어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

라울이 쿠바인들을 위해 아무런 새로운 것도 약속하지 않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화정책을 펴서 라울이 계속 집권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쿠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인은 경제제재를 통해 쿠바를 ‘징벌하는’ 문제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경제봉쇄란, 청부업자들로 구성된 피델의 탭댄스단이 매일 해대는 발길질은 전 세계 쿠바인에게 비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강력한 정책은 미국과 정상

적인 경제·정치 관계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쿠바의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모든 정치범의 석방, 정치국가로부터 탈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한다. 이런 사항은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불완전한 국가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오늘날 합의하고 있는 기준이다(베네수엘라는 아마 예외일 수 있지만).⁷⁾ 미국은, 자국민을 고문하고 억압하지 않는 참신한 얼굴의 쿠바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완화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스트로 형제가 새 정부 밑에 숨어버린다면 의당 좌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쿠바를 침공하여 무력으로 해방시키자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쿠바 국민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쿠바 국민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만반의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외국인이 쿠바의 체제 이행에 직접 개입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살인마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역사적 비극이 될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가 퇴임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한 독재자에게서 다른 독재자로의 권력 이양을 인정하는 듯한 어리석은 말이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자유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천백만 쿠바인들이 또 다시 절망적인 독재정권에 시달리도록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두 주자로 나선 바락 오바마 의원이 전제조건 없이 라울 카스트로와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약속이 이행되거나 혹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라울을 합법적인 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여

7) 베네수엘라의 자유 악화 문제는 로저 노리에가의 “차베스 하의 베네수엘라: 독재를 행한 길”, *Latin American Outlook* (2006년 6월)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www.aei.org/publication24491/)

다는 미국의 생각을 표명한 것이 되고, 이는 체제를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위협하는 쿠바의 강경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일이 정말로 역량 있는 개혁주의자들을 체제 내에서 소외시키고, 미국을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여겨온 민주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민주적 변화를 고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쿠바를 방문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은 야당지도자를 외면하고 카스트로 형제만 면담함으로써 쿠바인들을 실망시켰다. ‘권력승계’가 한창이던 순간에 발생한 이런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쿠바인의 희망을 짓밟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주변국들은 새로 출범한 쿠바 정권이 아메리카대륙 민주헌장(Inter-American Democratic Charter) —각국 정부는 대의민주주의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2001년 9월 11일 미주기구(OAS)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한 문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난 2월 로마 교황청 국무총리 타르치시오 베르토네의 아바나 방문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다. 쿠바의 새 ‘간수’ 라울과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써 바티칸이 이번 권력승계가 라울을 위한 외교적 쿠데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며칠 후, 베르토네는 라울이 스파이 행위나 살인죄로 미국에서 투옥되거나 기소된 쿠바 스파이와 쿠바가 자의적으로 구속한 양심수의 교환을 제안했다는 말을 전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을 샀다.⁸⁾ 베르토네의 불명예스러운 행위는 쿠바의 새 독재자에게 기만당할 수 있는 다른 외교관들이 유의해야 할 사례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쿠바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행하면 정치

8) Pablo Bachelet, “Cardinal: Castro Open to Trade Dissidents, Spies,” *Miami Herald*, March 1, 2008.



TV 마르티의 한 장면. 2006년에는 플로리다 해협 상공의 비공군기에서 주 6일, 하루 4시간씩 송출했다. 그러나 쿠바국민들은 수신 상태도 나쁘고, 또 정치선전물에 불과한 이 방송보다는 마이애미의 스페인어 TV연속극을 더 선호한다.

적·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누차 이야기했다.⁹⁾ 미국은 라울 정권을 유화적으로 대하거나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는 이런 제안 대신에 아직도 카스트로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피델보다는 라울이 쿠바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쿠바 안보 세력을 향하여 쿠바 국민이 자유를 갈망할 때 이를 탄압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쿠바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도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 쿠바 자유방송(‘라디오 마르티’와 ‘TV 마르티’)은 선두에 서서 쿠바 국민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9) 부시 대통령은 국무성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정책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George W. Bush, “President Bush Discusses Cuba Policy” (speech, Washington, DC, October 24, 2007),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10/20071024-6.html

또 쿠바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독재자를 거부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리고 쿠바의 방해전파를 피하기 위한 방안은, 부시가 관료적인 법학자들을 제압하여 공해상을 통한 공중 방송을 승인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쿠바의 경제회복과 민주화세력 지원용으로 의회가 승인한 새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결정적인 체제이행이 시작되면,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쿠바 국민의 사업 잠재력을 개발할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 세계 학생들에게 지금 쿠바를 방문해서 변화를 요구하다가 투옥되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반체제인사들을 만나보라고 격려해야 한다. 미국은 쿠바 출신 미국인 공동체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민주부대’를 조직하고, 이들이 쿠바에 들어가 변화를 추구하는 토착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울은 최근 평화적인 집회의 허용을 비롯하여 두 건의 UN 인권협약에 서명했다.¹⁰⁾ 국제사회는, 협약의 서명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쿠바 국민은 정당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대중 집회에서 미래를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경찰국가로부터 박해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범을 당하는 일 없이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치 행위는 쿠바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나아가려면 필수불가결하다. 전 세계는 쿠바 정권 그리고 쿠바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르코스 원칙—작고한 쿠바의 반체제인사 구스타보 아르코스(Gustavo Arcos)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회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을 존중하라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0) Will Weissert, “Raúl Takes Small Steps on Human Rights,” *Associated Press*, March 1, 2008.

라울이 정말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유엔이 파견한 국제인권 감시단, 미주인권위원회, 그밖에 명망 있는 독립 인권단체에게 감옥을 포함하여 쿠바 전체를 개방했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단체들은 지금 이런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박물관에서 공룡전시회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오래된 뼈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아바나의 화석이 앞으로 몇 달간 최소한의 개혁조치 단행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쿠바 국민의 염원을 쿠바정권은 수용하라고 압박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구스타보 아르코스(1926~2006)는 쿠바혁명에 참여하여 벨기에 대사까지 지냈으나 반혁명적인 언행으로 투옥되었다. 망명을 거부하고 쿠바에 남아 인권운동에 투신함으로써 반체제의 상징이 되었다.

쿠바 국민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카스트로 혁명 전, 쿠바 국민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발전된 사회를 건설했다.¹¹⁾ 지난 50년의 독재 때문에 쿠바는

11) 카스트로 혁명으로 황폐화되기 이전의 쿠바의 상대적 부에 대해서 로저 노리에가의 다음 글에 자세히 언급돼 있다. Roger F. Noriega, "Let Cuba Be Cuban Again," *Latin American Outlook* (February 2007), www.aei.org/publication25574/. 참조.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American Affairs, "Zenith and Eclipse: A Comparative Look at Socio-Economic Conditions in Pre-Castro and Present Day Cuba," February 9, 1998 (revised June 2002), www.state.gov/p/wha/ci/14776.htm.

경제적으로 아메리카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으나, 쿠바인들의 역량과 근면성은 세계 여러 망명사회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쿠바 국민들이 카스트로 형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이 여전한 것 같다. 많은 쿠바 국민이 안정을 위해 라울을 일단 믿어보기로 마음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외부세력도 라울의 권력 장악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정권의 생존이 잔혹한 스탈린식 강압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쿠바 국민은 이 정권이 조기에 몰락할수록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쿠바 국민이 과거의 군중에게 “이제 그만”(Ya Basta)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

* 이 글의 작성과 편집에 미국기업연구소의 연구원 메간 데이비(Megan L. Davy)와 편집위원 크리스티 홀 로빈슨(Christy Hall Robinson)이 참여했음을 밝혀둔다.

[번역: 서라연]

로저 노리에가(Roger F. Noriega) -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라틴아메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표적인 네오콘 이론가이다. 현재는 미국기업연구소(AEI) 방문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글의 출처는 《AEI Online》(2008년 3월 12일)이다.
